

포르투갈전 2골 차 승리하고 우루과이가 도와줘야

2022 카타르 월드컵
한국 16강 진출 경우의 수

11월 29일 국가별 2차전 종료 현재 순위	승	무	패	득실차	승점
16강 확정 포르투갈	2	0	0	3	6
가나	1	0	1	0	3
한국	0	1	1	-1	1
우루과이	0	1	1	-2	1

1차전: 우루과이 0:0 한국, 포르투갈 3:2 가나
2차전: 한국 2:3 가나, 포르투갈 2:0 우루과이
3차전: 한국 - 포르투갈, 가나 - 우루과이

12월 3일 오전 0시

* 골득실 같을 경우 다득점 따져 결정, 다득점도 같을 경우 승자승으로 결정, 무승부 시 페어플레이 점수로 결정

자료: 국제축구연맹(FIFA)

한국, 16강 진출 '경우의 수'

월드컵 16강의 길은 역시 멀고 험하다. 한국 축구 팬들은 이번에도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처지가 됐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8일(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에서 가나에 2-3으로 석패했다.

이어진 같은 조 포르투갈과 우루과이의 경기에서 포르투갈이 우루과이에 2-0으로 완승했다.

가나와 1차전에서 이긴 포르투갈은 2연승으로 최소 2위를 확보, H조에서 가장 먼저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2위 가나(승점 3·1승 1패·골득실 0·득점 5), 3위 한국(승점 1·1무 1패·골득실 -1·득점 2), 4위 우루과이(승점 1·1무 1패·골득실 -2·득점 0)가 마지막 한 장 남은 16강행 티켓을 두고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무조건 포르투갈을 이겨라'

먼저 16강 진출 시나리오의 가장 큰 전제는 한국이 포르투갈을 3차전에서 반드시 꺾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거나 비기면 곧바로 탈락이다.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기면 가나-우루과이 경기 결과에 따라 '16강 운명'이 갈린다.

이 때 우루과이가 가나에 승리한다면 한국과 우루과이는 1승 1무 1패로 승점 4 동률을 이룬다.

승점이 같으면 골득실차-다득점-승자승으로 순위를 따지는데, 한국은 현재 골득실과 다득점에서

포르투갈에 지거나 비기면 탈락
가나가 우루과이 이겨도 '무산'
포르투갈에 무조건 이겨 놓고
우루과이 무승부나 1골차 승리 땐
한국 16강 진출 길 열려있어

모두 우루과이에 앞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우루과이가 가나를 1골차로 이기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우루과이와 가나가 비긴다면 우루과이는 탈락하고, 한국과 가나가 승점 4 동률을 이루게 된다. 이 경우 골득실과 다득점을 따져야 하는데 무승부를 기록한 가나는 골득실이 그대로 0인 상황이 만들어진다.

한국은 포르투갈에 2점 차 이상 승리를 거둬야 유리하다. 그나마 골득실에서 가나를 앞설 수 있다. 만약 골득실이 같아져 다득점을 따지게 되면 한국이 불리해진다. 현재 가나의 총 득점이 한국보다 3점이나 많기 때문이다.

◇가나가 우루과이 꺾으면 한국 16강 진출도 '무산'

가나가 우루과이에 승리하는 것은 한국에 최악의 상황이다. 가나가 승점 6으로 포르투갈과 함께 16강에 오르고 한국은 탈락한다.

포르투갈이 우루과이에 승리한 것은 벤투호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된 포르투갈이 벤투호와 3차전에서 전력을 다할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포르투갈이 완전히 힘을 빼고 벤투호를 상대하리라 확신하기는 어렵다.

H조 2위로 16강에 가면 현재 G조 1위인 브라질이라는 부담스러운 상대를 만날 수 있어 포르투갈로서는 조 1위 사수를 지상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H조 경기 내용을 보면 포르투갈의 경기력은 다른 세 팀과 '다른 수준'이다.

/연합뉴스

내일의 월드컵

12월 1일(목) *한국시간 기준

튀니지 vs 프랑스	00:00
호주 vs 덴마크	00:00
폴란드 vs 아르헨티나	04:00
사우디아라비아 vs 멕시코	04:00

자료: FIFA



조규성의 헤더 동점골 28일 오후(현지시간)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 조규성이 선제골에 이어 동점 헤더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에서 이강인이 슈트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강인 없었으면 어쩔뻔”

교체 1분만에 어시스트 ... 경기 분위기 확 바뀌

1분이면 충분했다. '골든보이' 이강인(21·마요르카)이 벤투호를 참패에서 구해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8일 오후(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가나와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에서 2-3으로 아깝게 졌다.

벤투호는 우루과이전과 마찬가지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차근차근히 득점 기회를 만들어나갔다.

초반에 벤투호 축구는 제대로 먹히는 듯했다. 가나 진영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지속해서 득점 기회를 모색했다.

한국은 전반전 슈팅 수에서 가나에 5-2로 앞섰는데 그중 4개의 슈팅이 전반 초반에 나왔다.

하지만 골을 넣지 못했다. 결국 먼저 실점한 쪽은 한국이었다.

전반 24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모하메드 살리수(사우샘프턴)에게 실점했고, 전반 34분에는 모하메드 쿠두스(아약스)에게 헤더 골을 내줬다.

배랑 끝에 폴리자 벤투 감독은 후반 13분 권창훈(김천 상무)을 빼고 이강인을 투입했다.

이제 흐름을 바꿨다.

전반전 벤투호에는 상대 위험지역에서의 정확한 패스가 부족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올 시즌 2골 3도움을 올린 이강인은 1분 만에 '택배 크로스'를 넘겨 조규성(전북)의 헤더 득점을 도왔다.

이강인이 왼쪽에서 왼발로 올린 크로스를 조규

성이 머리로 받아 선제골을 뽑아냈다.

이강인 덕에 흐름을 탄 벤투호는 후반 16분 김진수의 크로스에 이은 조규성의 추가 골이 터지면서 2-2로 균형을 맞췄다.

이강인의 '황금 왼발'만큼은 매우 밝게 빛났다.

침투 패스는 상대가 예측하기 힘들었고, 로빙 패스는 질주하는 공격수의 머리카발 위에 정확하게 얹혔다.

이강인이 코너킥을 차려갈 때 관중석을 향해 응원을 요청하면, 팬들은 '구세주'라도 나타난 것처럼 두 팔 벌려 환호했다.

이강인은 2019년 U-20(20세 이하) 월드컵에서 한국의 준우승에 앞장서며 한국 축구 사상 최고의 유망주로 떠올랐다.

하지만 벤투 감독으로부터는 철저히 외면받았다. 지난해 3월 한일전(한국 0-3 패)에서 A대표팀 데뷔전을 치렀으나 이후 한동안 선발되지 못했다.

올해 9월 A매치 때 오랜만에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았는데도 1분도 뛰지 못했다.

그러나 26명의 최종 명단에 극적으로 이름을 올려 월드컵 무대에 서게 됐다.

벤투 감독은 이번 대회 2경기 연속으로 이강인을 교체 투입했다.

이제 1무 1패로 탈락 위기에 놓인 한국은 마지막 포르투갈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16강 진출을 바라볼 수 있다.

벤투가 이강인을 포르투갈전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손흥민 vs 호날두 '7번·캡틴 전쟁'

12월 3일 0시 H조 최종전
호날두는 손흥민의 롤모델
한국팀 운명 결정될 한 판



손흥민 호날두

호날두처럼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모두 7번을 단 손흥민은 호날두가 세계 최고의 선수로 발돋움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 진입해서도 진화를 거듭, 2021-2022시즌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까지 올라 2007-2008시즌 득점왕 호날두의 발자취를 따랐다.

국가대표팀에서 '에이스'이자 주장이라는 점도 닮은꼴이다.

2003년부터 포르투갈 성인 대표로 뛰며 2008년부터 주장을 맡은 호날두는 A매치 193경기에서 118골을 기록 중이다.

이들이 A매치에서 만나는 건 처음이다.

호날두는 그는 가나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페

2022 카타르 월드컵 한국 축구 대표팀의 운명이 결정될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세계적인 두 공격수의 '정면충돌'이 벌어진다.

한국은 다음 달 3일 0시(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포르투갈과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에 나선다.

양 팀의 주장 손흥민(30·토트넘)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7·마요르카)의 격돌은 경기 최고의 관전 포인트다.

많은 축구 선수들이 '롤 모델'로 여기는 호날두를 손흥민도 이상으로 여기며 '월드 클래스'로 성장했다.

손흥민은 여러 기회를 통해 "그가 추구하는 방식을 좋아한다"(2015년 3월 UEFA 챔피언스리그 패시브 Q&A), "호날두는 그가 가진 재능보다 더 노력한다"(2019년 3월 영국 가디언 인터뷰) 등 호날두에 대한 선망을 드러내 왔다.

유럽 무대에서 맹활약하며 그에게 '손날두(손+호날두)'라는 별명이 붙은 적도 있다.

널티킥을 직접 연어나 이번 대회 첫 골이자 월드컵 통산 8번째 골로 '월드컵 5개 대회 득점'이라는 최초의 기록을 세워 견재함을 과시했다.

이후 가나 측에서 페널티킥 판정 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다이버 논란'이 일어 다소 빛을 잃었지만, 팀이 가나와 우루과이를 연파하며 16강 진출을 확정 지어 호날두로선 마지막으로 세계 정상에 도전할 기회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손흥민과 호날두는 소속팀에서는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

2017년 10월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에서 펠레 때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났지만, 손흥민이 후반 막바지 교체 투입되며 함께 그라운드 선 시간은 길지 않았다.

2019년 7월엔 프리시즌 대회인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에서 선발 맞대결을 펼쳤는데, 당시 유벤투스(이탈리아)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호날두가 골맛을 봤다. 경기에선 토트넘이 3-2로 이겼다. 호날두가 지난해 8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돌아온 이후엔 EPL에서 지난 시즌 두 차례 맞붙은 적이 있다.

이번 대결을 앞두고 포르투갈이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된 점은 변수로 꼽힌다.

포르투갈이 단판 승부에 대비해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도 있어 이 경우 호날두가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